

남도도자, 엑스포로 미래를 빛자 <끝> 전문가 제언

“전남도자엑스포 성공해야 도자문화·산업 확산”

“전남만의 특성화된 도자산업과 한국도자재단이 협업하게 된다면 전국에 도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재단과 전남이 협업체계를 가지면 분명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문화재단인 ‘한국도자재단’은 2001경기세계도자엑스포 개최를 위해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전에 설립돼 전국의 도자 문화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자재단의 윤광석 상임이사(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를 만나 경기세계도자엑스포의 주요 성과와 전남세계도자엑스포의 추진 방향 등을 물었다.

경기도자엑스포는 당시 침체된 경기지역의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대별, 대륙별, 장르별 세계도자를 집대성한 대규모 엑스포 개최는 한국 도자문화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606만명의 관람객이 찾아 도자 분야로는 세계 최고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세계도자엑스포 개최는 실제로 지역활성화에 마중물이 됐다.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2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 4만명, 행사 기간 도자 매출액은 780억원에 달했다. 이전(예술도자), 여주(생활도자), 광주(조선백자) 등 지역별 전시 콘셉트를 차별화했고, 현재까지도 각각 다른 테마로 도자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 전후 철저한 현황 파악이 미비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윤 이사는 “경기도자엑스포 개최에 따른 성과 분석은 있었지만 개최 전 도자기 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며 “엑스포 전과 후의 도자기 현황 자체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자문화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했었으면 어땠을까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한국도자재단에게도 전남도와 4개 시·군(강진·무안·영암·목포)이 추진하는 전남세계도자엑스포는 큰 관심이다. 경기도자엑스포가 끝난 지 20년이 지

윤광석 한국도자재단 상임이사**전남엑스포에 ‘지속가능성’ 제언
특성화 연구·도로개설·민관정 협력
도자·세라믹 융복합 엑스포 고민도**

나니 도자 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다.

이에 윤 이사는 “전남 서남부권에 위치한 강진·목포·무안·영암 등의 도자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도자문화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 전남 도자문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선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고 발전의 계기가 되는 엑스포 개최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이사는 “강진은 청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청자를 통한 특성화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강진에서 황자도 개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도자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옛



한국도자재단의 윤광석 상임이사는 “전남세계도자엑스포가 흥행해야 국내 도자 산업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날의 도자를 재현하는 것이 목표인지, 새로운 도자문화산업을 보여줄 것인지 등 전남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전남세계도자엑스포를 위한 몇 가지 제언도 보탰다.

윤 이사는 △전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엑스포의 개최 방향성·행사 구성 등의 연구 △관람객 유치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민·관·정 협력과 지원 △향후 활용 가능한 문화시설 설립 등이 다.

전남이 도자뿐만 아니라 세라믹을 결합하는 등 양 분야의 접점을 잘 활용하면 지속가능한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이사는 “휴대폰·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활용되는 세라믹의 근본은 도자다”며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세라믹을 활용하지만 공예가가 과연 세라믹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두 산업은 분명 접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도자재단도 세라믹기술원과의 협업을 통해 얇고, 강한 새로운 점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윤 이사는 “더 중요해져야 하는 것은 융복합이다”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실생활과 연결되는 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 주변 어디서든 도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인식시켜서 도자가 국민들에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전=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 도자역사 우수… 현대화·산업화 연결 숙제”

“경기도의 우수한 접근성과 인프라에 비해 전남도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남도도자의 역사성과 고유성은 우수하기 때문에 ‘잘 켜기만 하면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김철우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는 전남세계도자엑스포 개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에 갖고 있는 역사성의 ‘연결’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은 ‘청자의 메카’, 영암은 ‘구림의 토기’, 무안은 ‘분청사기’, 목포는 ‘현대산업자기’ 등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는 우수하지만,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전국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낮은 인지도의 원인을 연결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콘텐츠는 역사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전남이 세계도자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한 당위성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전통은 현대와의 연결이 부족하고, 현대는 경제성과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진의 고려청자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전통이 바탕이긴 하지만 현대적으로 접목하고 노력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강진의 도예가들은 본인들이 작업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은 전통대로 가치를 가지고 가야 하고, 현대적이고도 실생활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자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도자를 잘 모르는 이유는 도자문화의 산업화



와 경제성에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대학에서 공예 전공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 교수는 ‘달항아리’를 통해 전통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하나 소개했다. 달항아리는 온화한 백색에 유려한 곡선으로 넉넉하고 고즈넉한 미가 깃든 한국의

김철우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수도권에 비해 인프라 열악 보완
역사에 비해 인지도↓…‘이슈부족’
“모두의 엑스포 위해 지자체 지원”**

대표 도자문화 중 하나다. 최근 글로벌 케이팝 가수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은 본인의 SNS에 달항아리를 구매하고 있다. RM의 달항아리 구매효과는 이후 대학내에서도, 실제 도자 유통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BTS의 멤버가 달항아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너도나도 달항아리를 구매하고 있다”며 “게다가 대학내 공예를 배우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달항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근 달항아리를 직접 만드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학생들까지 대표적인 전통의 미를 백자, 달항아리라고 말할 정도다”며 “전통은 전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현대와 어울려야 하고, 그 부분에서 파급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전남세계도자엑스포를 위해선 ‘모두의 엑스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엑스포가 개최된다고 해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리그가 될 수 있는 엑스포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끊임없는 지원은 핵심이다. 모든 일들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진행이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접근성을 높이고, 현재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경기도와 전남도를 비교하자면 참여하는 인원, 예산 등 단위 자체가 다를 수 있다”며 “전남이 왜 도자가 우수한가, 왜 전남에서 세계도자엑스포가 개최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전남이 보여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황지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